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GALLUP KOREA DAILY OPINION

정치 - 경제 - 사회 - 생활 - 문화
매주 새로운 Opinion Index를 제공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 2015년 5월 26~28일

가족 합의 하의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찬반 • 본인 /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장

2015년 5월 26~28일 • 휴대전화 RDD 조사 • 유효표본 전국 성인 1,006명 • 표본오차 $\pm 3.1\%$ 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6,964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를 기본 표본 프레임으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집전화 RDD 조사를 병행하며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한국갤럽 유무선 RDD 혼합조사설계, 선거여론조사 관련 연구논문

한국갤럽은 2010년 이후 유선전화(일반 집전화)와 무선전화(휴대전화) RDD 조사 과정과 결과를 수차례 비교 연구해 왔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논문을 참고해주시고, (아래 링크는 모바일기기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PC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 연구: 조사방법별 정밀성과 편향\(조사연구 2015년 16권 1호\)](#)
- [RDD 전화여론조사의 무응답 편향 보정 방법 연구\(조사연구 2014.11 15권 4호\)](#)
- [가중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편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조사연구 2014.5 15권 2호\)](#)
- [무선 RDD 전화조사의 타당성 검토 연구\(조사연구 2013.11 14권 3호\)](#)
- [선거시기 여론조사 정확성 제고 방안\(언론중재 2012 여름호 특집논문\)](#)
- [유무선 RDD를 결합한 혼합조사설계: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 사례 연구](#)



조사역사 41년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설립자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974년 문을 연 저희 연구소가 올해로 4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4년간 얻은 명성은 저희 조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012년부터 자체 기획, 운영하는 정치 지표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도 매주 정치,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전하겠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 하나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갤럽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정하고 신뢰 받는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대표하여

박 무 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 71%가 회사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의 특징

2012년 1월부터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를 연중 실시해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공개합니다.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필요하신 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조사 방법 / 지표 산출 방법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하루 300명, 매주 1,0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목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표본오차/해석 시 주의사항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일일 지표, 주간 지표의 표본크기는 1,000명 이상입니다.

유효 표본크기 6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pm 4.0\%$ 포인트, 1,000명일 때 $\pm 3.1\%$ 포인트, 1,200명일 때 $\pm 2.8\%$ 포인트입니다.

표본오차 이외에도 불완전한 표본추출률, 응답 거절, 질문에 대한 혼동 등 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표본오차는 이런 요인을 배제하고 비교적 완전한 표본추출률에서 확률추출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 2012년에는 매주 1,500명 조사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를 공개했으나, 2013년부터는 매주 1,000명 이상 조사하고 그 주 금요일에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문) 회생 불능 상태의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결정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때 본인이 사전에 의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가족 합의 하의 연명으로 결정 법제화에 대한 찬반

	조사완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명)	가족 합의 하의 연명으로 결정 법제화		
			찬성	반대	모름/ 응답거절
2013년 8월 5주(26~29일)	1,208	1,208	78%	17%	5%
2015년 5월 4주(26~28일)	1,006	1,006	77%	15%	8%
지역별					
서울	243	204	77%	17%	6%
인천/경기	295	293	76%	16%	9%
강원	23	31	-	-	-
대전/세종/충청	95	103	83%	8%	9%
광주/전라	94	102	69%	20%	11%
대구/경북	98	103	75%	15%	10%
부산/울산/경남	145	159	83%	10%	7%
제주	13	12	-	-	-
성별					
남성	570	496	81%	12%	7%
여성	436	510	74%	17%	9%
연령별					
19-29세	157	177	70%	24%	6%
30대	164	179	74%	18%	7%
40대	215	230	81%	13%	5%
50대	229	199	81%	12%	7%
60세 이상	241	221	78%	8%	14%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52	440	80%	12%	8%
새정치민주연합	223	236	77%	18%	5%
없음/의견유보	293	294	72%	17%	11%
직업별					
농/임/어업	45	41	-	-	-
자영업	135	128	81%	12%	7%
블루칼라	163	153	80%	14%	6%
화이트칼라	298	297	77%	15%	8%
가정주부	198	217	78%	12%	11%
학생	87	100	69%	27%	4%
무직/은퇴/기타	80	70	77%	17%	5%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113	117	75%	20%	5%
중	390	405	76%	15%	8%
중하	258	258	85%	11%	3%
하	229	211	74%	13%	13%
종교별					
불교	201	203	79%	10%	10%
개신교	230	221	72%	17%	11%
천주교	103	104	73%	19%	8%
종교 없음	470	475	80%	14%	5%

*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 2009년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은 '존엄사'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용어 채택,
2013년 8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관련 용어를 '연명으로 결정'으로 통일해 줄 것을 당부.
그러나 일반에는 아직 생소해 본 조사에서는 '연명치료' 용어 사용. 통칭 '존엄사법'으로 불림.

본인 /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장

질문) 만약 귀하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가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완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명)	본인이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		
			중단하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다	모름/ 응답거절
2013년 8월 5주(26~29일)	1,208	1,208	87%	8%	5%
2015년 5월 4주(26~28일)	1,006	1,006	90%	4%	6%
지역별					
서울	243	204	87%	8%	5%
인천/경기	295	293	92%	2%	6%
강원	23	31	-	-	-
대전/세종/충청	95	103	90%	3%	7%
광주/전라	94	102	90%	6%	4%
대구/경북	98	103	85%	5%	9%
부산/울산/경남	145	159	91%	3%	5%
제주	13	12	-	-	-
성별					
남성	570	496	90%	4%	6%
여성	436	510	90%	4%	6%
연령별					
19-29세	157	177	88%	7%	5%
30대	164	179	88%	4%	8%
40대	215	230	93%	3%	4%
50대	229	199	94%	2%	5%
60세 이상	241	221	86%	6%	7%
직업별					
농/임/어업	45	41	-	-	-
자영업	135	128	89%	4%	7%
블루칼라	163	153	93%	2%	5%
화이트칼라	298	297	92%	3%	5%
가정주부	198	217	91%	5%	5%
학생	87	100	88%	8%	3%
무직/은퇴/기타	80	70	84%	5%	11%
주관적					
상/중상	113	117	94%	3%	2%
생활수준별					
중	390	405	91%	4%	5%
중하	258	258	93%	3%	4%
하	229	211	85%	6%	10%
종교별					
불교	201	203	93%	1%	6%
개신교	230	221	84%	7%	9%
천주교	103	104	92%	2%	5%
종교 없음	470	475	91%	5%	5%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찬성	781	778	97%	2%	1%
반대	143	147	73%	18%	9%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질문) 만약 귀하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 상태가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완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명)	부모/배우자가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		
			중단하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다	모름/ 응답거절
2013년 8월 5주(26~29일)	1,208	1,208	61%	26%	13%
2015년 5월 4주(26~28일)	1,006	1,006	63%	24%	13%
지역별					
서울	243	204	65%	24%	10%
인천/경기	295	293	62%	26%	12%
강원	23	31	-	-	-
대전/세종/충청	95	103	59%	24%	17%
광주/전라	94	102	57%	27%	15%
대구/경북	98	103	64%	15%	21%
부산/울산/경남	145	159	63%	25%	13%
제주	13	12	59%	29%	11%
성별					
남성	570	496	64%	23%	13%
여성	436	510	62%	25%	14%
연령별					
19-29세	157	177	44%	38%	18%
30대	164	179	57%	31%	12%
40대	215	230	66%	23%	11%
50대	229	199	73%	18%	10%
60세 이상	241	221	69%	15%	16%
직업별					
농/임/어업	45	41	-	-	-
자영업	135	128	68%	16%	16%
블루칼라	163	153	72%	19%	9%
화이트칼라	298	297	60%	27%	12%
가정주부	198	217	67%	20%	12%
학생	87	100	45%	42%	13%
무직/은퇴/기타	80	70	64%	19%	16%
주관적					
상/중상	113	117	62%	32%	6%
생활수준별					
중	390	405	63%	24%	13%
중하	258	258	64%	23%	12%
하	229	211	64%	19%	16%
종교별					
불교	201	203	67%	19%	14%
개신교	230	221	64%	26%	10%
천주교	103	104	62%	27%	12%
종교 없음	470	475	61%	25%	15%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찬성	781	778	76%	13%	11%
반대	143	147	17%	73%	10%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원한다	902	904	69%	20%	11%
그렇지 않다	46	43	11%	89%	

*46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응답자 특성표

주요 분석 단위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기준)와 지역/성/직업/생활수준과 연령 분포 구성입니다. 2015년 1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8개 권역/성/연령별 가중 처리 결과.

질문 귀하는 어느 시도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지역을 알지 못합니다.)

질문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질문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표 2015년 5월 4주 (26~28일)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배율 (B/A)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사례수 (명)(A)	비율	사례수 (명)(B)	비율		
전체	1,006	100%	1,006	100%	1.00	±3.1%p
지역별						
서울	243	24%	204	20%	0.84	±6.3%p
인천/경기	295	29%	293	29%	0.99	±5.7%p
강원	23	2%	31	3%	1.33	±20.4%p
대전/세종/충청	95	9%	103	10%	1.09	±10.1%p
광주/전라	94	9%	102	10%	1.09	±10.1%p
대구/경북	98	10%	103	10%	1.05	±9.9%p
부산/울산/경남	145	14%	159	16%	1.09	±8.1%p
제주	13	1%	12	1%	0.89	±27.2%p
성별						
남성	570	57%	496	49%	0.87	±4.1%p
여성	436	43%	510	51%	1.17	±4.7%p
연령별						
19~29세	157	16%	177	18%	1.12	±7.8%p
30대	164	16%	179	18%	1.09	±7.7%p
40대	215	21%	230	23%	1.07	±6.7%p
50대	229	23%	199	20%	0.87	±6.5%p
60세 이상	241	24%	221	22%	0.92	±6.3%p
주요 지지						
새누리당	452	45%	440	44%		±4.6%p
새정치민주연합	223	22%	236	23%		±6.6%p
정당별						
없음/의견유보	293	29%	294	29%		±5.7%p
직업별						
농/임/어업	45	4%	41	4%		±14.6%p
자영업	135	13%	128	13%		±8.4%p
블루칼라	163	16%	153	15%		±7.7%p
화이트칼라	298	30%	297	30%		±5.7%p
가정주부	198	20%	217	22%		±7.0%p
학생	87	9%	100	10%		±10.5%p
무직/은퇴/기타	80	8%	70	7%		±11.0%p
생활 수준별						
상/중상	113	11%	117	12%		±9.2%p
중	390	39%	405	40%		±5.0%p
중하	258	26%	258	26%		±6.1%p
하	229	23%	211	21%		±6.5%p

*표본오차는 조사완료 사례수 기준.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2015년 5월 4주 (26~28일)	조사완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중 처리 후 결과				
			연령 분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전체	1,006	1,006	18%	18%	23%	20%	22%
지역별							
서울	243	204	19%	20%	21%	19%	21%
인천/경기	295	293	18%	20%	23%	20%	18%
강원	23	31	-	-	-	-	-
대전/세종/충청	95	103	17%	18%	21%	19%	24%
광주/전라	94	102	17%	16%	20%	19%	27%
대구/경북	98	103	14%	9%	31%	20%	25%
부산/울산/경남	145	159	17%	18%	21%	21%	23%
제주	13	12	-	-	-	-	-
성별							
남성	570	496	19%	19%	22%	20%	20%
여성	436	510	16%	16%	23%	20%	24%
주요 지지							
새누리당	452	440	13%	12%	15%	27%	34%
새정치민주연합	223	236	18%	29%	29%	13%	11%
정당별							
없음/의견유보	293	294	25%	16%	28%	16%	15%
직업별							
농/임/어업	45	41	-	-	-	-	-
자영업	135	128	5%	15%	34%	35%	12%
블루칼라	163	153	9%	17%	27%	30%	17%
화이트칼라	298	297	15%	35%	30%	17%	3%
가정주부	198	217	2%	12%	21%	19%	46%
학생	87	100	97%	3%			
무직/은퇴/기타	80	70	13%	3%	4%	14%	66%
생활 수준별							
상/중상	113	117	30%	19%	24%	15%	12%
중	390	405	19%	21%	23%	19%	18%
중하	258	258	18%	20%	27%	17%	18%
하	229	211	7%	9%	17%	29%	38%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71%가 한국갤럽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나, 무료로, 매주 금요일,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 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매주 추적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무선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무작위로 생성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한국갤럽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하루 300명, 매주 1,0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목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한국갤럽 조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폰)/2571/2621/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A